

가정예배 안내서

5

1993

충현의 만나

느헤미야 · 에스더



대한예수교
장주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하여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세계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7.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5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 · 한용관 · 성봉환 ·

조운재 · 장봉생 · 김수상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서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BC 538년에 1차, 에스라와 함께 BC 457년에 2차,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BC 445년에 3차 귀환이 있었다. 이렇게 3차에 걸쳐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루살렘성을 재건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때 종교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기록된 책이다.

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본 서를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더 서론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본 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바사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부림절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데 있다(에 9:24-28). 그러나 부림절 축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사상이 깃들여 있다. 따라서 본 서는 바사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가슴속에서는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1:11)

느헤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종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궁전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느헤미야였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고향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은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수 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임한 원인이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딪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금식해야 할 때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긍휼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왕성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2:8)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성이 재건되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찬 느헤미야를 보고 왕은 무슨 일이 있으며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즉시로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헤미야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고 선한 손으로 역사를 베풀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온전히 맡기며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예루살렘성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친 일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깁시다.

▶ 기도 /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자 예루살렘 성을 증언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2:17)

증인이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하여 본 대로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은 큰 역사로 나타났습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성을 돌아보면서 훼손된 곳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회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증언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헌신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입을 벌려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이웃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속에 감화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증거할 때 우리에게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된 일꾼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일곱배의 영력을 주소서.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3:20)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증진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증진하는 일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동시에 즉시 실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각각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일이 분담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성벽을 먼저 정리하고 그 후에 수리해야 할 곳을 고쳤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담하여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담을 함으로 선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어떤 분쟁이나 원한 그리고 파벌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을 마무리 하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만이 아니였고, 주위에 있는 자들까지 나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도, 미스바 사람도, 사노아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들의 도움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 힘을 기울여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과 행실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코 말로써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과 동시에 성벽을 증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일치 단결하여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요, 둘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라는 것이요, 셋째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 기도 /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충현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4:4)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과 이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성벽을 완축하는 날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서 적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옷을 벗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귀를 대적할 신앙 무장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사탄의 방해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는 길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무기를 들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든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4:20)

원수 대적들이 예루살렘성을 부수기 위하여 쳐들어 올 것을 계획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알고서 모든 백성이 철저히 무장을 하고 성벽을 수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민장(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휘권을 위임했습니다. 일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무장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에서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원수의 침입을 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군대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적 사탄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고 하여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무장하고 성벽을 쌓으라는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과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성이 온전히 쌓아질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나』(5:9)

우리는 본문에서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솔로몬도 애통히 여기던 것이었습니다(전 4:1). 이제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호소합니다(1-5절). 그들이 사는 시대는 매우 어려웠고 세금은 비쌌고 고리대금업자들은 잔학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출 22:25-27 : 신 15:7-15)을 어기고 이자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저당잡아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귀인과 민장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형제에게 취리하는 것을 책망하고 가난한 동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의무를 다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은 사회악을 제거하고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는 데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에 의해 성취되어지며, 정의는 사랑의 필연적 도구이며 사랑은 정의의 궁극적인 법칙과 원리입니다. 정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유대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행치 않는 자는 옷자락이 떨어짐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산업에서 떨어질 것을 약속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형제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은 없나 살펴봅시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 기도 / 항상 이웃을 살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내 하나님이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5:19)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의 맡은 바 본분에 힘썼습니다. 당시의 관리들은 자기 관할지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했으나, 그는 동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녹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 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전의 총독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힘썼습니 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자기 수하의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건축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신앙과 믿음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 겠습니다.

어버이날의 명상 :

까마귀는 흠척하게 생겼으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앉아 있는 가지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보다 낮은 가지에 앉습니다. 또한 그 부모가 늙어서 힘이 부치면 먹이를 물어다 봉양한다고 해서 반포조(反哺鳥)라는 명칭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까마귀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모두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영, 육간의 부모님께 주 안에서 효도하게 하소서.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6:13)

산발랏 일당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고(1-4), 그를 반역자로 모함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중단시키려던 시도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5-9).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의 측근인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은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으니 성소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소로 피신하면 백성이 보기에 목숨을 아끼는 비겁자로 비춰지며,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갔기에 율법을 범했다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함정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 예언임을 간파했습니다. 이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늘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마귀나 거짓 선지자, 혹은 이 시대의 유혹이 우리를 속이려 들지라도 당장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단의 세력을 이롭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마 24:3-6).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적 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성숙된 신앙과 지혜를 지녀야 하겠습니다(롬 12:2, 요 4:1-3).

▶ 기도 / 영분별의 은사를 주사 악한 세대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더욱 영감있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소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모계대로 계수하게 하신고로』(7:5)

본문에서는 이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에 소개된 바 있는 제1차 귀환자들의 가문별, 지역별 인원수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확인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거주자의 확보를 위한 방법은 흩어져 살고 있는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성 안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귀환자)을 다시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백성을 계수하는 일이 여러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원을 계수했으나 다윗의 경우는 사단의 격동에 이끌려 한 행위였습니다(대상 21:1).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인지 사단인지에 따라서 전혀 판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증견된 예루살렘성 안으로 백성을 이주시키기 위해 귀환자들의 숫자를 일일이 등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시며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 기도 / 천국의 시민됨을 감사하며 천국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8:8)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유대 사회 내부에서는 영적인 부흥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이던 성벽 완공 후에 종교개혁적인 대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의 낭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나팔절에 유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커다란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회개 운동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통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도리어 위로해야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부흥이야말로 성도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궁극적 과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고 외부의 침략에 대한 근심이 없어졌으나 예루살렘 성벽보다 견고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범죄와 나태, 율법에 대한 무지 등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충현의 가족은 새성전도 완공했으며 봉사관도 헌당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홍왕으로 전무후무한 회개와 성령 운동을 기대하여봅시다.

▶ 기도 / 우리에게 더욱 충만한 영적 부흥을 주소서. 각 교구 위에 전도의 능력을 주시어 배가로 성장하게 하소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 초막을 짓되』(8:16)

초막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기에 초막절을 지킴으로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의 쓰라림과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중 하나님의 규례를 많이 잊어 버렸습니다. 초막절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읽을 때 초막절의 규례를 재발견하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초막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왔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찾아왔듯이(13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시 42:1)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결과 유대 백성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17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재미없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로 삼아 생활하면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 기도 /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잃어버린 천국백성들을 모두 찾게 하소서.

『그 달 이십 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9: 1)

학사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을 시발점으로 하여 불붙기 시작한 종교개혁과 방불한 사건은 초막절 준수에 이어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금식 성회를 하며 자기 죄는 물론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과 맺은 부정한 관계를 청산하였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되 매일 세 시간씩 율법책을 낭독하고, 세 시간씩 죄를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삶을 철저히 비추어 본 후 돌아서는 결심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일체의 요소를 과감히 제거합니다. 이제 우리의 빈 가슴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장난을 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회개의 영을 주사 더러운 심령을 날마다 회개로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9:31)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등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담의 아들 가인 또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와같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고통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삽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와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시며 여러 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십계명에 비추어 보고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순종하도록 합시다.

▶ 기도 /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10:39)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반성을 하며 결심을 하는 생활은 매우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39절)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중심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하여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심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첫째,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쉬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일에 꼭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둘째, 그들은 신앙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결심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닙니다. 불신 결혼의 결과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며, 거룩히 지키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신앙의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들은 신앙 안에서만 결혼시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신앙의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결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주일에 모두 예배드리는지요? 주일에는 나의 직장을 쉬고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 기도 / 주님, 주일성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결혼들을 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복을 주소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11:1)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임하시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출40:34) 솔로몬왕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왕상 9:3)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영역은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시 135:21)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이나 그런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찬송가에 있듯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 기도 /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12:42,43)

오늘의 말씀은 새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여 그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은 크게 찬송하였고 무리들은 크게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큰 즐거움이 성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노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합니다(엡 5:19). 특히 우리들 가운데 즐거워 하는 사람은 더욱이나 '찬송할 것' (약 5:13)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행 16:25).

다음에는 온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 죄 용서를 받았습시다라는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크게 즐겁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했으니 참으로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께 가정적으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도록 합시다.

▶ 기도 / 교회마다 가정마다 생명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영력을 감절로 채우사 일본의 우상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13:3)

우리는 한국 사회와 전통과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한국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은 한국적인 것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적인 것은 거의 가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온 뒤에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에 따라 고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민족과 다른민족을 구분하여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신앙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도비야란 사람이 부당하게 성전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그를 추방하였습니다. 우리도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붙잡고 있어서는 안되고 그 죄를 수술하여 도려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할 십일조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주도록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물질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로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베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죄를 분명히 제거하십니까? 현금생활에 철저하십니까?

▶ 기도 / 주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고치며 살게 하옵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독일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와같이 저희로 이방사람을 떠나게 하여 ……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13:30,31)

느헤미야는 미친한 출생으로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여 훌륭하게 끝마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란 뜻은 ‘주께 위로받음’이란 뜻인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즉위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느 5:14).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신앙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율법을 낭독하므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이 백성들의 죄를 각성시켰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성전을 성결케 하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전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혼(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여 가정을 깨끗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잡혼을 금하게 하신 까닭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개혁은 어느 한 부부만이어서는 안됩니다.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야말로 여호와와 종교를 부패에서 개혁하고 쇠퇴하고 타락에서 부흥시킨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민족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며 애굽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소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1:4)

에스더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섭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하수어로 바사왕의 영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어로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무려 한 해의 절반인 180일을 잔치하며 그의 부와 영화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은 이 잔치를 아하수어로왕이 희랍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하수어로왕은 이 잔치를 베푼 후에 실패로 끝나기는 했으나 실제로 희랍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하수어로왕의 이 거창한 잔치는 왕후 아스디의 폐위와 패전이라는 두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오만한 자기 도취는 왕가의 비극과 함께 제국의 불명예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섭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사는 127도의 광대한 제국이었고 이 광대한 제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기획하시기 위하여 이 막강한 제국이 통치자로 하여금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 잔치를 열게 하시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 희랍 침공에 실패케 하시고 유다 처녀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합니다. 아하수어로왕의 등장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왕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위대한 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하여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되며 현지인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게 하소서.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1:10)

본문은 술로 인한 잘못된 판단력으로 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은 180일의 대연회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주흥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와스디를 연회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취중에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이를 거절하게 되고 왕은 많은 신하 앞에서 무안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문관들의 건의에 따라 왕후를 폐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술취함은 사람으로 이성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순간적인 감정을 폭발하여 분노하고 거친 행동을 하며 이성을 잃고 거룩한 생활을 파괴하여 방종하고 가정을 혼란하게 합니다. 아하수에로왕뿐 아니라 노아, 룻, 헤롯 등이 술로 인하여 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과 같이 술취함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지혜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릇된 조언을 하는 자들을 쫓아 엉뚱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지녀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왕이 왕후를 폐위시킨 것은 신하 무무간의 아부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었다면 결코 뒤에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에 항상 지혜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술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2:17)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바사의 왕후가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의 바사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였습니다. 하닷사는 화석류라는 뜻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그야말로 하닷사, 에스더는 그의 이름대로 그의 꽃다운 미모와 덕스러운 품성의 향기를 날렸는데 유대인에게는 화석류처럼 귀여움과 칭찬을 들었고 바사에서는 왕의 마음에 들어 왕후가 되어 만인 위에 뛰어난 별과 같이 존귀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전국에서 젊은 처녀를 물색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들을 뽑는 관리가 임명되었고 이들을 위한 궁도 마련되어 무려 12달을 보내면서 향품을 바르며 준비케 했습니다. 에스더는 내시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꾸밈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용모의 아름다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에스더가 왕의 눈에도 들어 드디어 왕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고아요 이방인인 그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데 특히 내적인 미, 온유와 겸손, 꾸밈없는 순결함으로 자신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특별히 내적인 아름다움, 온유와 겸손, 순결함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현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홍콩인들이 되게 하소서.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3:2)

본문은 모르드개의 충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개는 신하로서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안 모르드개는 에스터를 통해 그 비열한 음모를 담대하게 왕께 고했습니다. 물론 모르드개는 사촌 동생이 왕비로 있다는 사실도 있겠지만 성의 문지기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였으며 그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충성은 자기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르드개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교만하여 자기의 권세를 빙자하여 모든 사람으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절했지만 그러나 모르드개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개가 고백한 대로 그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개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자만심 때문이나, 반역 사건을 적발해낸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지 못한 불만심에서 비롯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어떤 인간에게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 없었고, 특히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외의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뉴질랜드), 이기성, 박정아(호주) 평신도 선교사의 모든 사역에 복을 주소서.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짖고 굶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4:3)

본문은 하만의 간계로 바사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자,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개는 먼저 자신이 앞장서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며 회개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배움을 입고 금식하며 재에 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재난과 원통함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께 통회자복할 때 이런 겸비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데 먹어서 무엇하며 침상에서 어찌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며 침대 대신 재를 무릅쓰고 재 가운데 누웠습니다. 오직 눈물과 탄식이 그들의 음식을 대신했습니다. 또 그들은 짐을 함께 졌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모두 함께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과 핍박이 닥친다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하나되어 통일되는 축복을 주소서.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주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오늘 본문은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이 다 죽임 당함을 알고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가면 죽을 것을 알았지만 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신상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희생물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획득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친히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32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주소서. 앞세간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담대한 신앙을 주소서. 금요찬양집회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영적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소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6:9)

본문에는 아하수에로왕과 모르드개와 하만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하수에로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궁전의 역대일기를 읽던 중에 공신 모르드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알고 그에게 무슨 관직과 존귀를 베풀까 하여 의논할 사람을 찾던 중 마침 하만이 바깥 뜰을 거닐고 있어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자기밖에는 왕의 상을 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여 성중 거리로 다니며 반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공신 모르드개에게 그와같이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모르드개와 하만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왕의 역대일기(1절)는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는 선악간 모든 일에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왕복(세마포옷)과 자신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하나님은 하만과 같은 교만한 사람(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을 물리치고 모르드개와 같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올리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하만과같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모르드개와 같이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모르드개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밀알선교회와 이 땅의 모든 장애자들 위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7:10)

본문에서는 사태가 급전하여 하만이 자신의 계교에 도리어 걸려들어 처형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권세가 왕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막강하다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아내들을 모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을 나오는 도중 모르드개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드개의 이러한 태도에 화가난 하만은 그를 장대에 매달기를 결심하고 50규빗(약 23미터)에 달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사형수들을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더욱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웠다는 것은 모르드개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만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잠 26:27) 나무에 달린 하만을 통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악한 술수로 남을 괴롭히는 자는 잠시 성공을 거두는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가정은 나약하고 실패하는 것같이 여겨져도 종국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벧 2:3-5)을 가지는 충현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 /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농아자들의 교회학교인 예바다부원들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8:3)

아하수에로왕은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고 또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더욱이 왕은 유대민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하만의 음모가 적힌 칙령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왕이 이와같이 하게 된 것은 에스더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왕후였습니다. 본문 3절에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울며 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호소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왕은 에스더에게 금홀을 내어밀었다고 했는데 금홀을 내어민다는 것은 에스더의 부탁과 호소를 허락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6절에도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로 유대민족이 살아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간구로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 여기에서 에스더가 간구했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에스더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와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 / 이 나라와 민족이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아들에게 떡과 복음을 함께 풍성히 주소서.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오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느니라』(9:16)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두 번째 포고령이 발표된 후에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유대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 모든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오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결코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만 보전하려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대적을 칠만오천이나 도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결했기 때문입니다. 단결하며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개인의 힘이란 아주 보잘것 없을지라도 협력할 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수하지만 협력해서 하는 일에는 좀 약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단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민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가정과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질병에서 자유케 하소서.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9:31)

부림절은 히브리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기념된 유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역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수석장관이었고 유대인의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모르드개의 양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국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로 그의 음모를 꾸밀 최적의 때를 정하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3장 7절). 그 결과 아달월 13일이 결정되었습니다(3:12 이하). 그러나 그의 계획은 에스더의 용기와 금식기도와 모르드개의 충성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은 모르드개를 달려고 만든 장대에 달려 처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절기는 유대민족의 적을 섬멸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들의 박해로부터 살아남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민족이 구원과 구속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는 부림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만과 같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림절을 구원과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소서.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도움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꿈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10:3)

모르드개는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권세가 높은 하만에게 굽히거나 아부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할 운명에 놓였을 때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사활을 맡겼고, 민족의 생명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아하수어로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권세를 차지했을 때도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걱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세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본문 3절에도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개의 애국심은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며 어려운 형제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본문 3절에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개를 유대 백성들은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본문 3절에 유다인 중에 존대하며 그 허다한 형제에게 꿈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가족들도 모두 모르드개와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애국자가 됩시다.

▶ 기도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6월에도 함께 하소서.

구역공과



제 17과

아버지의 기도

· 찬송 : 480장, 482장

· 성경 : 창18:16-26

· 요절 : 창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
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기름진 땅을 차지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사랑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비밀을 안 아브라함(16-21절)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창 18:1-15).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을 멸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때때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2. 기도하는 아브라함(22-26절)

이에 아브라함은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에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브라함의 간청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

속을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조심스러움과 애절함으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10명의 의인만 그 성에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는 조카 롯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당했지만,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창 19:29을 읽으십시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 적용

1.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2.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체험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효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소서.

제 18과

자녀의 순종

· 찬송 : 304장, 305장

· 성경 : 엡 6:1-4

· 요절 : 엡 6:1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 중 제5계명부터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 보낸 서신(에베소서)에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 순종하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은 곧 순종의 생활을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강조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안에서”라 함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아무말없이 순종했습니다(창 22:9-10). 물론 이는 이삭의 믿음과 경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4절)고 했습니다.

2.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적용

1. 나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2.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하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는지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계명대로 주 안에서 부모님 잘 공경하여 순종하고, 자녀들에게도 모범된 생활과 훈계로 잘 가르치게 하소서.

제 19과 구원받은 가정

· 찬송 : 36장, 460장

· 성경 : 행 10:1-8

· 요절 : 행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군대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가장인 고넬료의 경건함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 사람이 경건하면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

군인의 신분으로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유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에 특별한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항상 기도한 고넬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등 성경의 인물 외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는 2천명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5만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온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적 용

1. 고넬료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주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제20과 하나님의 자녀

· 찬송 : 305장, 492장

· 성경 : 요1:6-18

· 요절 :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 빛으로 오신 예수님(6-11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이 임하는 사람에게 새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빛이 임하면 그 사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2. 하나님의 자녀(12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혈통관계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3.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13-18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말씀. 새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분이 만아들이시고, 우리 역시 그 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적 용

1.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2.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서로 얘기해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오게 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을 널리 전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